

지역대학, 의치약학계열 30% 지역학생 뽑는다

2015학년도부터... 대입 '지역인재 전형' 최종 확정

전남대·조선대 등 이미 30~50% 모집... 도움 안돼

전남대와 조선대를 비롯한 전국 69개 대학이 2015년 대학입시부터 '지역인재전형'으로 의·치·약대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등에서 신입생 7486명을 모집한다.

오는 2015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지방대학이 모집 전형의 일부를 특정 지역 출신의 고등학교 졸업생으로 선발할 수 있는 지역인재 전형의 법적 근거가 최종적으로 마련됐다.

지역인재 선발비율은 의과·한의과·치과·약학과 등 학부는 30% 이상, 법학전문대학원·의학전문대학원 등 전문대학원은

20% 이상이다.

교육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9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지역인재 전형은 지방대가 모집 정원의 일부를 해당 지역 출신의 고교생에 할당해 선발하는 방안이다.

시행령에 따르면 전국을 호남권, 충청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 강원권, 제주권 등 6개 권역으로 나눠 해당 지역인재를 뽑도록 했다.

다만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은 전국에서 1곳만 있어 지역인재 전형의 지역 범위를 비(非)수도권 전체로 정했다. 강원권과 제주권은 적은 수험생 수 등 지역 여건이 고려돼 학부는 15% 이상, 전문대학원은 10%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됐다.

그러나 지역인재 전형이 광주·전남 수험생들에게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전남대·조선대·동신대 등 지역 대학 의치약학 계열들의 경우 이미 지역 학생들을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50% 이상 뽑고 있기 때문이다.

전남대 의학전문대학원은 지난해(2014학년도) 모집정원 63명 중 32명(50.8%)을, 치의학전문대학원(치전원)은 70명 중 30명(42.9%)을 지역인재특별전형으로 선발

했다. 지역인재를 20% 이상 뽑도록 한 시행령의 기준보다 배 이상 선발하고 있다. 조선대도 의전원은 32%, 치전원은 40%를 지역 인재로 뽑았다. 동신대 한의대도 모집정원 50명 중 50% 이상이 지역 고교 출신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과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이 대졸 신규 채용인원의 35% 이상을 지역인재 전형으로 뽑으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했다.

교육부는 중앙 단위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와 지방 단위의 육성지원협의회 구성을 추진해 지방대학 육성법을 차질 없이 시행할 계획이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한승원 칼럼

“어머니의 마음으로 군정을 이끌고, 우리 군을 어머니 품속 같은 곳으로 만들겠습니다...나는 우리 군의 머슴입니다.”

광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 지사체의 신입 군수가 한 말의 요지이다. 오랜만에 반갑고 고마운 말을 들었다.

나는 돋보기 안경을 뒤야 끼고 이 글을 쓴다.

어머니의 마음 혹은 품속이란,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듯, 자식들을 위한 근심걱정이 그치지 않는 마음이다. 어머니의 품속은 자비로운 부처님이나 여호와의 가슴에서 사랑이 흘러나온 훈훈한 공간이다.

그것은 자기에게 표를 주지 않은 사람까지 품겠다는 것이다. 머슴이란, 더럽고 천한 일들을 마다하지 않고 하는 것을 사명으로 삼으면서도 군림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

다른 많은 지사체의 장과 이 땅의 대통령과, 새로 임명된 장관과, 모든 관료들이 '어머니의 마음으로 군정을

는 자들은 무수한 제자의 논문들에 자기 이름을 제1저자로 발표하고 제자의 이름을 제2의 저자로 하는 것을 서슴없이 하고 그것을 관행이라고 말한다.

연구다운 연구 한 번 하지 않았으므로 논문다운 논문 한 편 제대로 쓰지 않은 그들은 무엇을 하며 세월을 보냈을까. 이십대에 엉터리로 쓴 석사 박사 논문을 퇴임할 때까지 우려 먹은 것이 아닌가.

신문의 칼럼 정탁을 받아, 제자로 하여금 대필하게하고 원고료를 받아 챙기면서, 새 정보를 얻기 위하여 새로운 학생의 책 한 권 구매 일지 않고, 연구실의 책상에 앉아 주식 투자(단타) 놀음만 했다는 것이 아닌가.

수완과 요령 좋은 관료들은 퇴임하기 무섭게 자기가 은밀하게 도운 공공단체의 이사로 들어가서 새로운 연봉을 받으며 호의호식한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부패할 대로 부패해버린 관행의 세상과 더불어 썩어 문드러졌다.

어머니의 마음 혹은 다사로운 품속

이르고, 나는 머슴으로 일하겠다'란 말을 새겨들었으면 한다.

세월호 참사와 그 사건을 있게 한 마피아 같은 구조적인 범죄들, 제대를 앞둔 병장이 동료들에게 수류탄을 던지고 총을 난사한 사건, 원자력 발전소에 가짜 부품을 납품한 사건, 철도 부품 부정하게 납품 받고 여겨지 기 로비한 단체장이 자살한 사건, 국무총리 지명자들이 출출이 낙마한 사건, 그리고 세월호 사건을 책임지고 사퇴하겠다고 한 총리를 유입시킨 사건 따위로 인해 국민들은 슬프다.

옛날의 농부의 경우로 말하자면, 집안 살림살이의 근간이 되는 소를 잃어버린 셈이다.

지금은 절망하거나 슬퍼하고 있지 말고 허술한 외양간을 고쳐야 할 때다. 그런데 외양간을 고쳐야 할 인물이라고 내세운 사람들이 우리들을 거듭 한심하게 한다.

그들의 성공과 능력을 따지고 가리는 '정문화'라는 것을 보면서 이 땅에는 '참으로 착하고 깨끗한 지성인'은 지성인이 없다는 생각을 한다.

그들은 하나같이 사리사욕으로 위장전입을 하고, 전관예우로 엄청난 돈을 쟁했다. 평생 교수 생활을 했다

그런 사람들 속에 끼지 않고, 내부의 부정을 고발하는 정직하고 용기 있는 사람은 왕따를 당하고 집중적인 돌팔매를 맞는다. 도(道)가 무너졌다.

“도는 하늘에서 내린 순수한 성품(천명)이다. 그 성품을 받은 군자(지성인)는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혼자 있을 때) 삼간다.” “숨는 것보다 잘 나타나는 것이 없고, 자질한 것보다 더 잘 보이는 것이 없다.”

이것은 중용에 있는 말이다.

외양간을 고치려면 우리 개개인의 영혼이 깨어나야 한다. 탐욕을 버리고 거짓으로 살아온 삶을 참회해야 한다. 요즘 청와대는 늘 참회할 줄 모르고 거짓으로만 살아온 사람들을 앞에 내세우려한다.

그들은 영조·정조 시대의 탕평책을 쓰려 하지 않고, 자기 선거 캠프에서 활동한 사람이나 자기에게 동조했던 사람들을 농공행상 식으로 활용하려 하기 때문에 늘 그 나물에 그 밥인 인물들을 내세우는 것이다.

부디, 어머니의 마음으로, 보수나 진보나 중도나 가리지 말고 능력 있는 깨끗한 인재를 발탁하여 내 사람처럼 쓰도록 하라. 인사가 만사라고 하지 않던가. <소설가>

신임 주일대사 유홍수씨

신임 일본 주재 한국 대사에 4선 국회의원 출신인 유홍수(77) 한 일진선협회중앙회 이사장이 내정된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경남 합천 출신의 유 이사장은 치안본부장(옛 경찰청장)을 역임한 경찰 출신 인사로 전두환 정권 때 충남도지사, 대통령 정부 제2수석비서관 등을 역임한 뒤 부산을 지역구로 12, 14, 15, 16대 국회의원을 역임했다.

유 내정자는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 두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다.

경남중에 경기고를 졸업한 유 내정자는 마산중과 경남고를 나온 김 실장과 함께 경남중·고 동창회 멤버이며, 서울대 법학과를 같은 해에 졸업했다.

/*연합뉴스



지역의 독립호 ! 자자

“의료민영화 반대한다” 광주지역 보건료로 노조원 500여명이 22일 서울에서 열리는 의료민영화 반대 집회에 참석하기 앞서 광주시청 앞에서 출정식을 갖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사의

장관급인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이 22일 사의를 표명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 실장이 오늘 일선상의 사정으로 사의를 표했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김 실장의 사의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은 덕수상고를 졸업한 뒤 은행 일과 대학공부를 병행하면서 입법고시와 행정고시에 잇따라 합격했으며, 공직에서도 예산과 재정, 정책 기획 분야의 요직을 두루 거쳤다.

국무조정실의 한 관계자는 “김 실장의 부인이 지난해 숨진 큰아들들 2년간 간병하면서 건강이 안 좋아졌고, 부인의 병 간호를 직접해야 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광주시 고위공무원 절반이 전남대 출신

광주시 고위공무원의 절반이 전남대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내 5개 구청과 광주시교육청의 경우 편중 현상이 심하지는 않았으나 전남대 출신 숫자가 역시 많았다.

22일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광주지역 지자체와 광주시교육청을 상대로 조사한 '2014년 고위공무원 출신학교별 현황'에 따르면 광주시의 고위공무원 24명 중 전남대 출신이 12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호남대 3명, 조선대·성균관대 각각 2명이며 경희대·서울대·한양대·방송통신대·해대대학 각 1명이다.

5개 구청의 경우 호남대 7명, 전남대 6명, 조선대 6명, 광주대 2명, 동강대·방통대·서울대·전남과학대·고졸출신 8명 등이다.

시교육청은 전남대 8명, 방송통신대 6명, 광주대 5명, 조선대 4명, 호남대 2명, 고려대·목포대·고졸출신 각 1명이다.

시민모임은 고위공직자 기준을 4급으로 정해 이들의 출신대학을 분류했다.

시민모임은 이 같은 현상이 공무원대 각각 2명이며 경희대·서울대·한양대·방송통신대·해대대학 각 1명이다.

5개 구청·교육청도 많아 광주 NGO 조사 결과

은 향후 연구주의 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시민모임의 한 관계자는 “지역사회에서 전남대를 학벌중심으로 규정할 수 없으나 공무원 사회의 주류를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학연이나 학벌과 직접 연관이 없더라도 주의 깊게 관심을 뒤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시민모임이 분석한 정부부처 3급 이상 고위 공직자 1476명 중 일명 'SKY' 출신은 서울대 435명(29.5%), 연세대 152명(10.3%), 고려대 133명(9.0%) 등 총 720명으로 절반에 달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여성가족부 인정

2014년도 야간방학반 **“가정폭력상담원”** 교육

<광주광역시 북구청 승인 교육기관 : 08-1>

■ 교육일시(총100시간)
▶ 2014년 8월 중 개강 매주 월, 화, 목, 금 오후 6:00~

■ 모집대상 (각 항에서 1개만 해당되면 가능)
①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②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
③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단체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 가정폭력방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자
④ 이주 노동자 및 외국인 관련 단체 및 시설(외국인보호)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⑤ 장애인 관련 단체 및 시설(장애인보호)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수 강 료 : 24만원
※ 계좌 : 063-107-581656(광주은행) 예금주 : 광신교육원(가폭)
※ 수강료를 환불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규정(법 제15조, 규칙 제16조)에 따라 환불조치하며, 2회 이상 수강이후 취소할 경우 환불이 불가합니다.
※ 교육생이 30명이 이상 모집되어야 개강이 가능하며, 미실시시 전액 환불해 드립니다.

■ 교육특전 및 혜택
① 교육훈련 교과목 중 이수하여야 할 이수별 총 시간의 90% 이상을 수료한 자에 대해서는 수료증과 가정폭력상담원 자격증 카드를 발급합니다. (출석시간 90% 미만자는 재적격처리함.)

■ 제출서류
① 신청서(소정양식)
②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③ 신분증 사본
④ 사진 2매
⑤ 경력증명서(해당자)
⑥ 자격증 사본(해당자)

광신대학교 한국가족치유상담교육원

500-710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백지소로 36 교학차 (062)605-1112, 1063

SINCE 1988

대한민국대표방수제 **칠만표 방수제**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

무료견적 시공상담 유사품, 모방품에 주의하세요!!

“제품에서 공사까지 책임집니다.”

누구나 칠만하면 100% 완전방수!!

칠만표방수제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시공전 → 시공후

옥상, 지하실, 외벽, 주차장, 옥실등 방수를 요하는 곳

최선을 다하며 방수전문가가 책임방수를 합니다. 폭리를 취하는 견적이나 뽕뽕견적은 넣지 않습니다.

광산구 381-0061 서 구 352-7788 남 구 676-7719 북 구 512-7998

목포[삼화] 274-5987 목포[건영] 243-7463 순 천 744-8605 여 수 654-7755

(주)칠만공사 / 칠만표방수제 서울 본사 : 02-454-7722 기타지역 080-777-0555